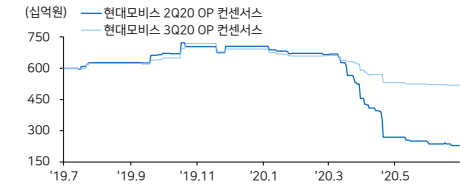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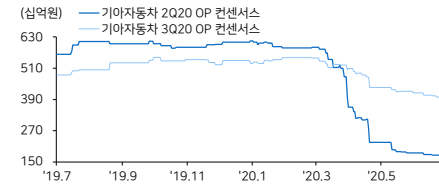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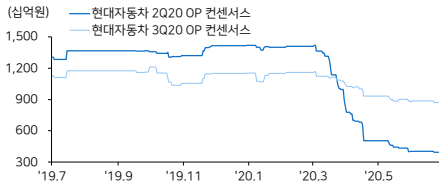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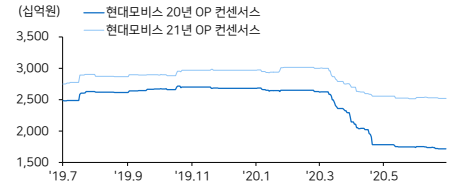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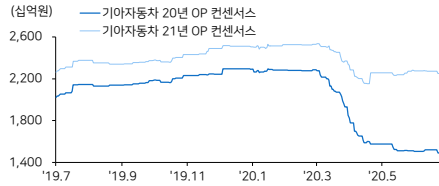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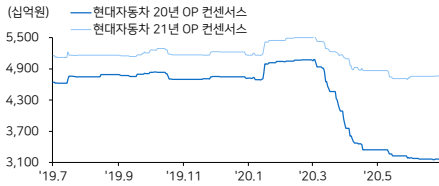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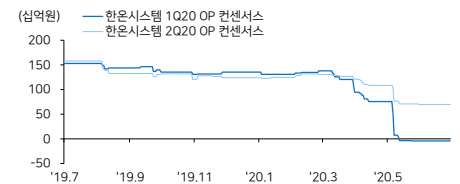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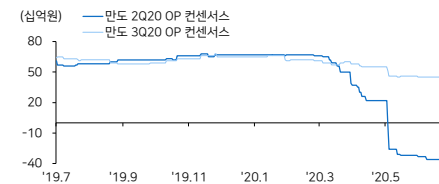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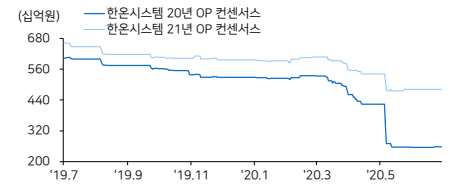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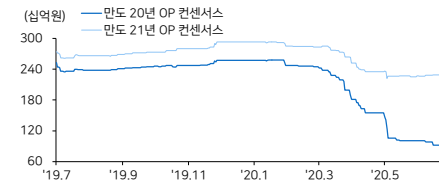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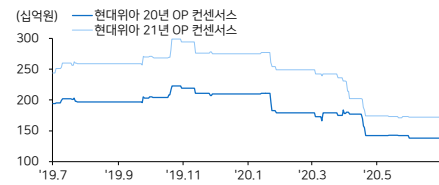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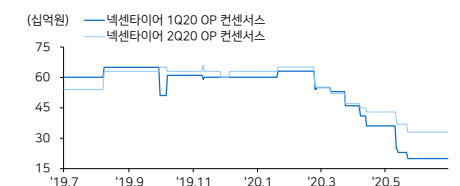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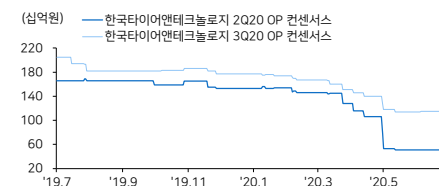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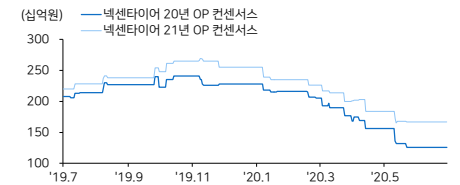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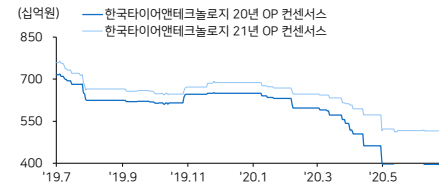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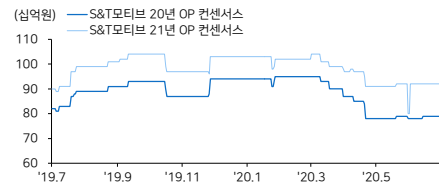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폭주전기차' 테슬라 14% 폭등...JP모간도 목표가 상향 (뉴스원)

테슬라의 주가가 14% 폭등. 월가에서 테슬라를 가장 비관했던 JP모간까지 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 테슬라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13.5% 뚝 1371.58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40% 가까이 상승. <https://bit.ly/31PW50h>

현대차, 수출 감소한 소형차 생산라인 여를 휴업 3일 휴업 (뉴스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월에도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29~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한 울산 3공장의 가동을 중단. <https://bit.ly/204rHXK>

`긴축' 현대모비스...AS 부품박스 통합 (디지털타임스)

현대모비스가 2021년부터 서비스센터에 납품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애프터서비스(AS) 부품박스를 통합키로 함. 양사 부품 박스 통합은 지난 1998년 양사 통합이후 처음 있는 일. <https://bit.ly/3f8F4G>

올해 유럽 신차판매량 전년 대비 25% 감소 예상 (M오토데일리)

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유럽 차 판매량이 '19년 대비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 물량 회전은 월별 마이너스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독일 6월 신차 판매는 전월 대비 11%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https://bit.ly/20dPzB1>

유럽 달리는 韓 수소화물차...400만대 시장 문 두드린다 (ZD넷코리아)

6월 스위스로 첫 수출된 현대차의 중대형 수소화물차는 10년 뒤 300~400만대 규모로 성장할 수소전기트럭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승용차 수출에 이어, 수소상용차까지 수출 주력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https://bit.ly/2Z3JgNX>

기아차, 대형버스 생산라인 등 휴업 (KBS NEWS)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일부가 휴업에 들어감. 기아차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내외 수요가 줄어든 대형버스의 생산을 오는 10일까지 멈추고, 봉고트럭 생산라인도 오는 8일부터 10일, 29일부터 31일까지 휴업. <https://bit.ly/2VTDP2d>

미 자동차 기업들, 코로나19로 아심한 신차 발표 줄줄이 연기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아심차에 개발하고 발표를 앞뒀던 신차 출시를 줄줄이 연기. 포드와 GM 등이 오토 쇼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신차 출시 방법과 시기를 재고하고 있음. <https://bit.ly/38wipxa>

중국 바이톤 전기차 사업 중단...명신 군산공장 위기 (노컷뉴스)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명신 군산공장에 경고등이 켜짐.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톤이 지난 1일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 <https://bit.ly/2NXGJP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